

실리콘, 퍼스널케어 트렌드 주도!

실리콘 함유제품 비중 확대 ... 복합기능성 및 고부가가치로 수요급증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용 실리콘(Silicone) 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응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합적인 기능성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리콘 생산기업들이 특수하고 전문화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실리콘은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 2002년 출시된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의 50% 이상이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다.

Dow Corning에 따르면, 실리콘은 특수제품으로 분류되고 기능향상제(Performance-Enhancing Material)로 불리고 있다. 실리콘은 미적기능을 제외하더라도 피부보호, 클렌징, 활성촉진(Active-Enhancement), Wash-Off 방지, 헤어케어 제품의 컨디셔닝 효과증진 등 이 외에도 무수한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실리콘은 다양한 기능과 부가가치적 이점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의 이상적인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또 실리콘 생산기업들이 기술적인 부문에 있어서도 전문화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실리콘 수요강세를 유도하고 있다.

Rhodia는 생산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실리콘의 기능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SRI Consulting에 따르면, 세계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용 실리콘 시장은 연평균 4%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시장은 6-7% 성장하고 있다. 2002년 북미 및 유럽 시장은 2억-3억달러규모에 달했으며 2006년에는 4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미국은 2002년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용 실리콘 3만1300만톤 가량을 소비했다.

선케어 제품에 사용되는 실리콘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2년 선케어 제품의 약 70%가 실리콘을 원료로 사용해 2002년 60%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부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선케어 제품 수요가 증가해 실리콘 소비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케어 제품용 실리콘 수요는 실리콘 응용분야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리콘은 피부느낌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Film Barrier 및 위시오프 방지 등 피부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또 스킨케어 시장은 고부가가치라는 이점에 따라 실리콘 수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리콘은 피부에 활성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2002년 미국의 스킨케어 신제품 가운데 55%가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어 2000년 4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케어용 실리콘 소비량도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인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리콘은 컨디셔닝 효과가 탁월해 모발의 빗질을 수월하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모발의 지속성을 높이고 모발에 광택과 윤기를 제공해 준다. 2002년 출시된 헤어케어 제품 중 65%가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으며 2002년 64%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화장품 분야에서 실리콘은 대부분 방취제 및 제한제(Antiperspirant)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Clear Stick Solid 포물레이션이 적용된다. 방취제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실리콘은 방취제에 건조한 느낌을 제공해주고 끈적거림을 방지해주며 유분과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준다.

그러나 최근 실리콘 시장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수 실리콘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생산기업들은 퍼스널 케어 시장의 제품 혁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GE Silicones은 미국 시장에서 퍼스널 케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8>